광주 전남 불교계

남북 민간교류 앞장

북녘 어린이돕기 · 친환경 농법 지원 등
몽산 · 현지 · 광민 · 행법 스님 등이 주축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6월 12일 친환경 농업기자재를 북한에 보냈다. 환송식 모습.

광주에서 6 · 15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 · 전남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남북 민간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6 · 15 민족통일대축전을 맞아 6월 9일부터 옛 전남도청 전시실에서 '북녘어린이 그림전'을 열고 있는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공동대표 행법 스님, 정의행. 이하 불교연대)는 4년째 북녘어린이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6 · 15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법 스님은 "당시 북한은 식량난이 어려웠던 때로 어린이들의 배고픈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 6차례에 거쳐 어린이 분유 10톤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불교연대는 매주 일요일마다 무등산 입구 문빈정사 광장에서 등산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북녘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펴고 있으며, 오는 7월경 콩 우유제조 기계를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cafe.daum.net/peacebuddhapia)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상임대표 몽산 스님(대흥사 주지)도 6월 12일 전남대 대강당 앞에서 '키틴분해 미생물제' 등 친환경 농업 기자재 5톤을 화물차에 실어 북한에 보냈다. 키틴분해 미생물제는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이 2003년 바닷가에 버려진 게 껍질더미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 개발한 것으로, 설탕과 섞어 물에서 배양한 뒤 벼, 토마토, 배추, 복숭아, 배 등에 뿌리면 농약을 쓰지 않고 병충해를 막을 수 있다.

이날 몽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해남에는 게 껍질이 풍부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북한의 친환경 농법 재배 면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062-361-8061)

매년 북한에 못자리용 보온비닐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도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현지 스님은 지난 4월 3일 광주 전남지역 시도민이 참여해 마련된 통일쌀 55톤과 못자리용 보온 비닐 43톤을 북녘에 보냈다.

현지 스님은 2000년 북한에 못자리보내기 운동에 불교계를 대표해 참석하면서 북녘동포 돕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본부 설립을 주도했다.(062-431-0035)

이밖에 광주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도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대표를 맡아 민간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062-363-8200)

이같은 광주 전남 지역 스님들과 불교계의 활발한 남북 민간교류 활동에 대해 정의행 불교연대 공동 대표는 "나눔과 더불어 사는 삶은 불교의 근본이다"며 "불교계에서 더 많은 남북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생명나눔 광주 전남지부 백혈병 투병 지원금 전달

장기기증과 수술비 지원으로 생명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 · 전남지부(본부장 현장 스님)는 6월 12일 화순 전남대병원 원장실에서 '투병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김영진 원장에게 성금 500만원과 학습도구를 전달했다(사진).

이 성금은 지난달 무등산 입구에서 문빈정사와 증심사 신도회가 생명나눔 바자회와 모금활동을 펼쳐 적립된 기금이다.

이날 김영진 원장은 "투병기금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양우석(19세) 군 치료비로 쓰겠다"고 밝혔다.

금년 들어 세 번째 투병기금을 전달한 현장 스님과 신도회 임원들은 "생명나눔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백혈병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양군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준엽 기자

전북포교사단 사업계획 확정

전북포교사단(단장 김혜수)은 6월 10일 전북불교회관 2층 강당에서 '2006년도 총회 및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교육에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미래불교와 포교사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포교사는 자기수행과 포교를 병행하는 수행자이다"며 "정진하는 포교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수 단장도 인사말에서 "지역적으로 불교세가 약하지만 실천하는 포교사가 되어 지역불교를 일으키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포교사단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불교 단체간 교류확대 △월1회 포교사 법회봉행 △포교사 및 가족 수련대회실시 △불우청소년 장학금지급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빛고을 도심포교 원조 원각사

중창불사 회향

대웅전 · 원각루 등 완공
1250佛 부조 장엄미 '일품'
월 100여회 법회 개최

호남의 중심 광주에서도 심장격인 금남로. 이곳에 자리한 원각사(주지 도제)가 도심 포교 100년을 앞두고 6월 13일 중창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대웅전 낙성식을 겸한 이날 법회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과 각 사암 스님, 박광태 광주시장, 유태명 동구청장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보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빛나는 고을 광주(光州)에 찬란한 금당이 들어섰다"고 증명하고 "법을 전하고 듣는 이 모두가 무위진인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원각의 도량이 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원각사 중창불사는 대웅전(40평), 원각루(70평), 요사채(20평) 건립과 극락전(12평), 솟을문(15평) 복원 등으로 가람을 일신했다.

도심 빌딩 숲 사이에 전통 사찰의 웅장한 위용을 드러낸 대웅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외3포 내5포 팔작지붕으로 근래 보기드문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웅전에 이용된 목재는 서울 조계사에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들어서면서 해체된 덕왕전을 옮겨온 것으로 도심 포교의 정신을 잇고 있다. 내부는 부처님 재세 당시 제자들의 구법정진을 상징하는 1250불을 부조로 장엄했다.

이에 앞서 2년 전 건립된 원각루는 2층 누각으로, 원각사 일주문, 불교회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옛 법당(극락전)과 일주문 역할을 해오던 솟을문을 복원했다.

송광사 광주분원 원각사는 1914년 민가의 재실을 옮겨 도심포교당으로 창건됐다. 12평 작은 법당으로 출범한 당시는 용성, 만해 스님 등 선지식들이 저자거리에 나와 포교에 혼신을 다하던 때였다. 중심가에 위치한 원각사도 자연스럽게 근, 현대 호남불교의 중심이 되어왔다.

원각사 법당에서는 구산 스님을 비롯해 전국의 선지식이 사자후를 토했고,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만났다. 청년회에서 배출한 불자만 3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원각사는 가히 '불자양성 사관학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0년 5 · 18 광주민주항쟁 때는 시민군 보호와 대학생불교연합회, 청년불자들의 민주화 시위활동 거점역할을 했다.

현재 원각사에는 어린이회, 중고등 학생회, 청년회, 신도회 보현원각봉사단, 합창단, 경전반, 문화교실반 등 각종 신행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월 100여회에 이르는 법회와 강좌가 열리고 있다. (062)223-3168.

"교육 · 신행의 새바람 불 것"

interview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

"도심 포교당은 '포교 발전소'입니다. 우리 신도를 확보하기보다 광주 불교에 활력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찰 문턱을 낮추고, 초심자들을 교육시켜 각자의 재적사찰로 보내 광주불교 전체적인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광주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이 주장하는 도심포교당의 역할론이다. 4년 전 원각사 주지로 부임한 스님은 새벽부터 철야정진에 이르기까지 포교 전방에 나섰고, 한편으로는 도량불사에 전념했다.

중창불사를 통해 도심에 나온 이가 쉽게 법당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올곧은 교육과 신행활동으로 실천하는 불자 양성에 힘쓰고있다.

1차 중창불사를 마친 도제 스님은 "광주 금남로에 아시아문화수도 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원각사는 세계적인 불교문화 중심이 될 것"이다며 "세계를 향한 포교를 위해 2차 불사를 구상중이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충북불교총연합회, 도정발전 기원법회

"한글 배우고 문화 느껴봐요"

화성 용주사, 외국인 근로자에 무료한글교육

경기도 남부의 대표적 사찰인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용주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2만 5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효행교육관에서 무료 한글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오후 11시부터 30분간 한국문화강좌도 개설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주사는 한글교육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로 교육강사를 구성했다.

교육강사는 덕본 스님(용주사 포교국장), 권중서(불교문화재 해설 전문포교사)김수희(국제포교사), 홍창화(화성시청 문화홍보과), 이정민(화성시청 건설도시과), 정경숙(서울대 사범대 한국어 지도자 과정), 정수연(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이종숙(문학도)씨 등이다.

참가하는 외국인 근로자교육생에게는 용주사에서 점심 제공 및 만남의 공간도 제공할 방침이다. (031) 234-0040

김원우 기자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공)는 6월 16일 청주 선프라자 대연회실에서 충북도정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삼귀의례에 이어 공로패 및 표창 수여, 주요 도정보고, 기원문 낭독, 사홍서원 순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도공 스님이 공로패를, 충북불교총연합회 연복흠 사무국장 등 3명은 도지사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淞澹 지음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감탄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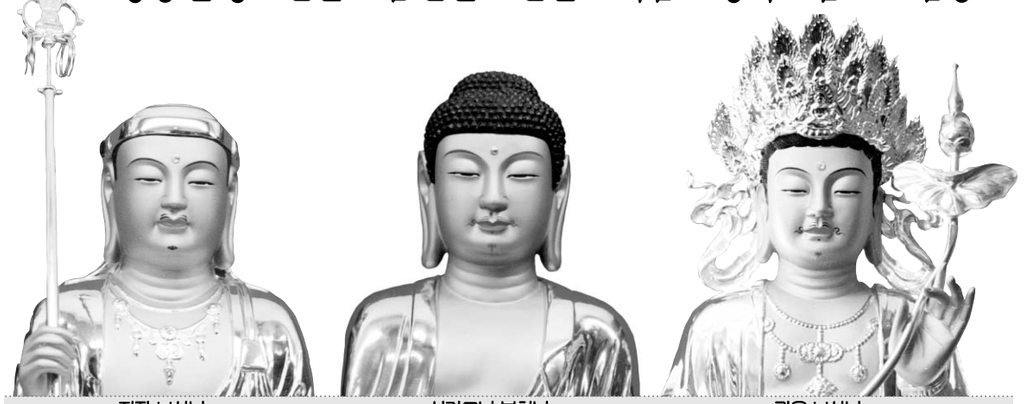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바보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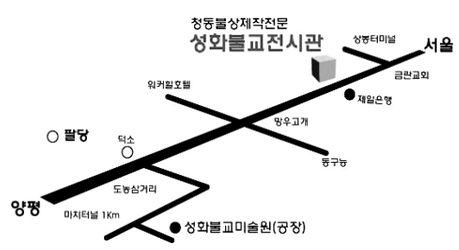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